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60회

# 나를 이기고 또 끝까지 세상을 인내로써 살아가면 죽음이 물러가리라



## 極樂歌(二) 극락가

敗道德雜柔世 패도덕잡유세  
風打之竹浪打竹 풍타지죽랑타죽  
克己又世忍祭去 기기우세인제거  
新天地月更見 신천일월강건  
山水前松山開 산수전송송개  
九宮加一 亞人 구궁가일불아인  
銘心不忘守從 명심불망수중

씩어 무너진 도덕에 온갖 잡된 것이 난  
무하니 바람 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  
아가는 세상이지만 나를 이기고 또 끝까지  
세상을 인내로써 살아가면 죽음이 물러가  
리라. 이후 오는 신천신지(新天地) 새 하  
늘 새 땅 밝고도 더욱 밝으니 금수강산  
우리나라 앞길에 솔솔 열리리라. 십승지인  
(十勝之人=九宮加一 亞人 구궁가일 불  
아인)을 마음에 모셔서 가르침을 잊지 말  
고 따라야 하리라.

末世聖君容天林 말세성군용천박  
我邦人生不願 아빙인생불고

信天者生智覺人 신천자생지각인  
地天者死無智覺 지천자사무지각  
信天者從木 신천자종목  
信地者倭拜再生滅死 신지자상배재생멸사  
此在中大和門往來者 此在中大和門往來者  
心白眼白白花開 심백안백백화개  
心生湧泉數列數列 심생운천부열부열  
宮商角徵羽琴聲 궁상각징우금성  
清雅一曲雲霄高 청야일곡운소고  
憂愁思慮閉門心 우수사려폐문심  
和氣東風閉門開 화기동풍폐문개

心和琉璃天國界 심화리유천국계  
天主侍衛金石屋 천주시위금석옥  
東方延壽石崇富 동방연수석승부  
兩人壽福豈叱耶 兩인수복기갈야  
天降雨露三豐 천강우로삼풍  
眞人居住白白白 眞인거주양백백  
三豐何理意 삼풍하리의  
無穀大豐 무곡대풍  
不聽轉白之意 불청전백지의  
不覺訪道君子心覺 불각방도군자심각

말세성군인 하나님의 얼굴을 한 박(朴)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목인

(木人)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  
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하늘에서) 십승  
을 구하는 자는 영생하리니 지각(知覺)이  
있는 사람이요 땅에서 십승을 구하는 자  
는 죽으니 지각이 없는 사람이로다. 하  
나님을 믿는 자는 감람나무를 따라 영생  
을 하고, 마귀세상을 믿는 자(땅에서) 십승  
을 구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  
멸망을 받아 죽으리라.

중(中) 즉 지나침도 모자란 점도 없는  
1 중(中)은 고래로부터 유가에서 윤  
집결중(允執厥中)이라 하였는데 【인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문(大和門)  
유위(人心惟危) 도심유미(道心惟微) 유  
정유일(惟精惟一) 윤집결중(允執厥中):  
『서경(書經) 우서 대우모(虞書大禹謨)』  
사람의 마음은 욕정(欲情)에서 나온 마  
음으로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  
는 마음은 의리(義理)에서 나온 마음으  
로 극히 희미한 것이니, 정신 차리고 오  
직 하나로 모아, 그 중정(中正)을 진실  
로 잡아야 한다.】 강중산 선생이 저술  
한 것으로 알려진 중화경(中和經)의 중  
(中=道之體도지체)과 화(和=道之用화  
지용)도 이를 말한 것이다. 중(中)을 얻  
으면 세상만사를 화(和)로써 응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격암유록(생초지략)에  
서는 천하만사응화선(天下萬事應和仙)  
이라 하였던 것이다. 논어에 군자(君子)  
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小人)  
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도 있  
다. 화(和)란 '화합하여 하나가 되다.'라  
는 뜻이 있다. 온화한 마음으로 하나 되  
는 마음이라야 구원 영생이 가능하다.  
동풍은 춘풍(春風)이니 말과 행동이 봄  
바람처럼 온화한 것을 말한다.

을 왕래하는 자는 마음이 희고 깨끗하며  
눈이 밝아지니 심령이 백합화처럼 피어나  
고 마음속에서는 생명수가 샘솟듯 솟아나  
오느니라. 오음(五音)의 금 거문고 소리를  
타고 청아한 노래 한 곡조가 하늘 높이 울  
려 퍼짐에 온갖 근심걱정으로 단했던 마  
음의 문이 온화한 동풍(動風)에 활짝 열리  
는구나.  
마음이 화평하고 유리같이 투명한 천국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황금과 보옥으  
로 된 집에서 살게 되니 동방삭(東方朔)의  
수명(壽命)과 석송공(石崇公)의 부유함이  
어찌 비할 수가 있겠는가? 삼위일체 구세  
주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화우로(火雨露)  
가 삼풍(三豐)이나라. 진인은 양백에 거하  
시는데 양백 삼풍은 그 이치와 뜻이 무엇  
인가? 그것은 곡식 없는 대풍(大豐=대풍  
년)이 드는 이치니라. 임산하면 죽는다는  
것을 구덩이들지 않으니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가? 도를 찾는 군자들은 부디 그 뜻  
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 하상공(河上公)의 도덕경을 이단(異端)이라고 부르짖으니 장차 세상이 망할 징조로구나!

## 精覺歌(一) 정각가

不覺精神怨無心 불각장신원무심  
還回今時心和田 환회금시심화일  
天說道德忘失世 천설도덕망실세  
東西道教會仙境 동서도교화진경  
末世田染儒佛仙 말세교염유불선  
無道文章無用世 무도문장무용세  
孔孟讀書稱士子 공맹독서칭사자  
見不覺無用人 견불각무용인  
阿彌陀佛道僧任 아미타불도승임  
末世田染失眞道 말세교염실진도  
念佛多誦無用日 념불다송무용일  
彌勒出世何人覺 미륵출세하인각  
河上公之道德經 하상공지도덕경  
異端主唱將亡兆 이단주창장망조  
自稱仙道呪文者 자칭선도주문자  
時至不知恨歎 시지부지탄탄  
西學立道讚美人 서학립도찬미인  
海內東學守道人 해내동학수도인  
舊染失道無用人 구염실도무용인  
枝枝葉葉東西學 지지엽엽동서학  
不知正道何修生 부지정도하수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마음을 돌이켜 화합하고 화목해야 하는  
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道)  
와 덕(德)을 잃어버린 지금의 세상에서 동  
서(東西)의 도(道)와 종교가 모여 하나가  
되어 선경(仙境)을 이루려고 하느니라. 말  
세에 유불선이 구습(舊習)에 물들었으니  
도(道)가 없고 경전 속의 문장도 쓸모가 없  
는 세상이 되었느니라. 공자 왈(孔子 曰),  
맹자 왈(孟子 曰)하면서 사서삼경을 읽으  
며 자칭 선비인데 선생인데 하는 사람들  
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쓸모없는 사람  
이로다. 아미타불만 외우는 불도를 닦는  
스님들도 말세를 당하여 세속에 물들어  
참된 도를 잃어버렸으니 염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쓸모없는 세월이로다. 미륵불  
이 출세하건만 어느 사람이 알겠는가?  
유교의 선비들이 하상공(河上公)의 도  
덕경을 이단(異端)이라고 부르짖으니 장  
차 세상이 망할 징조로구나. 자칭 선도(仙  
道)를 닦는다고 주문(呪文)을 외우는 사람

들도 때가 이른 것을 모르니 한탄할 일이  
로다. 서학(西學=기독교)에 들어가 하나  
님을 찬미하는 자들과 우리나라 동학(東  
學)을 수도하는 사람들도 구습(舊習)에 물  
들어 도를 잃었으니 모두 아무 쓸모가 없  
는 사람이로다. 동서양(東西洋)의 여러 종  
교와 학문이 참된 진리 즉 바른길(正道정  
道)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도를 닦아 영생  
을 할 수 있겠는가?  
再生消息春風來 재생소식춘풍래  
八萬經內極樂說 팔만경내극락설  
八十一載道德經 팔십일재도덕경  
河上公長生不死 하상공장생불사  
死而復生一氣道德 사이부생일기도덕  
上帝豫言聖真經 상제예언성진경  
生死其理明言判 생사기리명언판  
無聲無臭別無味 무성무취별무미  
大慈大悲博愛萬物 대자대비박애만물  
一人生命貴宇宙 일인생명귀우주  
有智先覺合之合 유지선각합지합

人人選本道成德立 인인원본도성덕립  
人人不覺寒心 인인불각한심  
孔孟士子坐井觀天 공맹사자좌정관천  
念佛僧任不染塵世念佛僧任不染塵世  
如言將談 여언장담  
各信生死從道不知 각신생사종도부지  
虛送歲月恨數 허송세월한탄  
海外信先天定人 해외신천선정인  
唯我獨尊信天任 유아독존신천임  
降大福不受 강대복불수  
죽을 목숨 다시 살아 영생하게 된다는  
소식이 봄바람(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말씀)에 실려 오는구나. '팔  
만대장경' 안에도 극락설(極樂說)이 있고  
노자(老子) 도덕경 81경에도 실려 있느니  
라. 하상공의 장생불사(長生不死) 주장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죽을 목숨 다

시 살아 영생케 한다 하였고 하나님의 예  
언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진경(眞經=격  
암유록)에는 생사(生死)의 이치를 분명하  
게 밝혀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특  
별한 맛도 없지만 대자대비(大慈大悲)하  
서서 우주만물을 두루 평등하게 사랑하  
시느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라. 지혜 있는 자와 선각  
자들을 화합, 단합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느니라. 사람 사람마다 근본(根本)으로  
돌아가(원시본원原始返本) 하나님에 되  
고 도성덕립(道成德立=영생의 도를 완성  
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전념함)이 되게 하  
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  
니 한심한 일이다.  
도(道)는 천도(天道)를 말하고 영생  
지도(永生之道)이다. 덕은 지덕(地德)  
으로 도를 지상에 실현하는 것을 말한  
다. 천도지덕(天道地德)을 줄여서 도

덕이라고 한다. 주역에 겸(謙=겸손,  
겸허, 겸양)은 덕지병(德之柄)이라 하  
였으니 덕을 실현하려면 자신을 낮추  
어야 한다. 겸손, 겸양, 겸허한 마음이  
없으면 도성덕립은 없으며 영생은 불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자 왈 맹자 왈 하면서 사서삼경의 글  
자를 외우는 선비님 네들 우물 안 개구리  
가 하늘을 쳐다보는 격으로 경전의 참 뜻  
을 모르고 있고 아미타불을 외우며 염불  
하는 스님 네들은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  
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생사의 이  
치도 모르면서 제각각 도를 따라 신양하  
지만 허송세월만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해외(海外) 즉 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만이 하  
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유아  
독존(唯我獨尊)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들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어도 받지  
못하리라.

# 모든 도(道)와 종교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천하의 크나큰 원통함과 원한을 풀게 되느니라

## 精覺歌(二) 정각가

我東方道呪文者 아방동도주문자  
無文道通主唱 무문도통주창  
生死之理不覺 생사지리불각  
不知海冤無用 부지해원무용  
道道教教獨主張 도도교교독주창  
信仰革命不知 신앙혁명부지  
何不覺而亂世生하불각이만세생  
天降大道此時代 천강대도차시대  
從道合一解冤知 종도합일해원지  
天藏地秘十勝地 천장지비십승지  
出入生弓乙乙處 옥지궁궁을출  
種桃仙境紫霞島 종도선경자하도  
日日研究今不覺 일일연구금불각  
欲知弓弓乙乙處 옥지궁궁을출  
只在金鳩木兔邊 지재금구목토변  
庚辛金鳩四理 경신금구사구리  
甲乙木兔三理 갑을목토삼팔리  
一勝一敗縱橫 일승일패종횡  
四九之間十勝處 사구지간십승처  
欲知金鳩木兔理 옥지금구목토리  
世謠流行心覺 세요류행심각  
乙矢口何理節矢口何意 을시구하리절사구하의

氣和者肇乙矢口 기화자조을사구  
日中有鳥月中玉獸 일중우조월중우수  
何獸 鳩兔相合眞人 하수 구토상합진인  
世人苦待難道令世人고대경도령  
何回事永不覺 하의사영불각  
우리나라에서 동학의 도를 닦는다고 하  
면서 주문(呪文)을 외우는 자들이 무문도  
통(無文道通=글 없이 도통함)을 부르짖지  
만 생사(生死)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해  
원(解=원통한 마음을 풀)의 이치를 알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모든 도(道)  
와 종교가 오직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나 신앙혁명을 모르고 생사의 이치와  
해원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난세(亂世)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인간  
의 몸을 입고 친히 강림하셔서 무극대도  
(불사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니 모든 도  
(道)와 종교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천하의  
크나큰 원통(冤痛)함과 원한(怨恨)을 풀게  
되느니라.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십승지(十勝  
地)는 들어오면 살고 나가면 죽게 되는 궁  
을촌(弓乙村)이요 영생의 씨앗을 심는 선  
경(仙境)으로 자하도(紫霞島)라 하느니라.  
날마다 궁을촌(弓乙村)을 깊이 파고 들어  
조사해 왔으나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여  
궁을심승처(弓乙昇處)를 알고자 한다  
면 목토(木兔=목운=궁궁)와 하나가 된 금  
비둘기(금구금鳩=금운)에 있느니라. 금  
비둘기는 서방경신사구금(西方庚辛四九  
金)의 이치 즉 금운(81궁 정도령)으로 오  
시고 목토(木兔)는 동방갑을삼팔목(東方  
甲乙三八木)의 이치 즉 목운(72궁 정도령)  
으로 오시느니라. 목운과 금운이 합하여  
(십=+) 81궁 금운(四九之間)속에 십승처  
(十勝處)가 이루어지느니라. 금구목토(金  
鳩木兔=금 비둘기 나무토끼)의 이치를 알  
고 싶으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마  
음 속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을시구(乙矢口) 절시구(節矢口) 지하  
자 조을시구!' 가 어떤 이치이며 무슨 뜻  
인가? '을(乙)은 궁궁을을(弓弓乙)이며

시구(矢口)는 지(知)이니 정도령을 알아  
야 된다는 뜻이요 절시구(節矢口)는 정도  
령이 오시면 죽는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  
으로 개벽을 시켜 더 이상 추운 일기가 없  
어지고 화창한 춘일(春日)만 있게 됨을 알  
아야 하느니라.'라는 뜻이다. 상구(相觀)  
의 세상, 원(恨)과 한(恨)으로 점철된 '죽는  
세상은 끝이 나고 상생의 세상, 따뜻한 봄  
날과 같은 사랑(대자대비大慈大悲)이 넘  
치는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화  
(和)한 생명의 기운을 불러 넣어주는 분  
(정도령)이 오셔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어 주시니 을시구 절시구 지하자 조을시  
구! 좋아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다.  
해 속에는 새가 있고 달 속에는 옥수(玉  
兔)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가? 바로 금 구  
조(金鳩鳥=금운 81궁 정도령)와 옥토끼  
(玉兔=목운 72궁 정도령)라 금구(金鳩)와  
옥토(玉兔)가 서로 합해진 진인이 나오  
는 데 즉 동서(東西)가 합하고 금목(金木)이  
합해진 진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분이 세  
상 사람들이 고대하던 정도령이나라. 무

슨 일로 세상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를 깨  
닫지 못했는가? 마지막에 오시는 81궁 정  
도령(금운金運)은 72궁 정도령(목운 木運)  
이 합해진 81궁이다. 이는 강중산 선생이  
천지공사가 끝난 후 당신 뒤에 두 사람이  
더 온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를 두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고 한 말이다. 마지막에 오는 분을 대두목  
이라 하였고 대두목은 왕종의 왕이란 말  
이다. 왕종의 왕(대두목)은 구세주요 구세  
주는 메시아요 메시아는 미륵불이며 정도  
령이 되는 것이다.\* 박영하/고서연구가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림들이 실재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